



Hello! I am **Sister Mary Gertrude McElhinny**. I entered the community on September 8, 1951. My mission for the last 37 years has been at Saint Michael School and Church in Greenville, Pennsylvania plus our St. Margaret Mission Church in near-by Jamestown.

After thirteen years teaching at St. Michael School, I became the Pastoral Minister,

developing the Parish Care and Concern program called "Michael's Mantle." Under this mantle, we have some sixty volunteers reaching out mostly to senior citizens in Greenville and Jamestown.

This program has become very rewarding for us. I now have a very qualified Coordinator for Michael's Mantle.



Drawing by a fifth grade student "many years ago."

My main focus

currently is with the many funeral preparations for St. Michael and St. Margaret parishes. One year we had seventy funerals-keeping the priest, the deacon and myself very busy.

Sister Mary Joseph is with me now, and she is much more than a volunteer. Our daily prayers together cover all our dear families: our own, those of the people I serve, and the Mother Elizabeth Seton Sisters of Charity family.



My vocation is a great on-going gift from God!



안녕하세요?

저는 멜리 걸트루드 메켈리니 수녀입니다. 1951년 9월 8일 입회해서 37년 동안 펜실베이니아 그린스빌에 있는 성 마이클학교 및 본당. 그리고 제임스타운 근처에 위치한 성마가렛선교본당에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성마이클학교에서

13년간 재직한 후 "마이클맨틀 (Michael's mantle:프로그램 명칭)이라고 하는 본당사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목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스빌과 제임스타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약 6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매우 보람된 프로그램이었고 현재 저ney이 프로그램의 공식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1학년 학생이 그린 그림

지금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성마이클과

성마가렛본당에서 장례미사를 준비하고 돕는 것입니다. 본당신부님과 부제님 그리고 저는 1년에 70대의 장례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죠.

메리 조셉수녀님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수녀님은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희는 가족, 본당 신자들, 수도회를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성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